십자가와 교회(I)-세상과 교회

(갈라디아서 6:14)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교회(1)-세상과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와 교회(1)-세상과 교회'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는 네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와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의 번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생활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모든 말씀은 '오늘 하루 십자가 생활화를 합시다.'라는 주제에 이끌려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치중되고 강조되는 사이에, 교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부분인 교회 생활의 영역이 조금 소외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의 영역에까지 적극적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적용해보자는 의미에서 '십자가와 교회'라는 주제를 여러 소제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와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개괄적으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좋고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먼저 출석하고 있는 예배당 건물을 떠올리실 것이고, 또한 나와 가깝게 지내는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라면 당회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으로서의 교회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에 뒤따르는 이미지와 개념이 분명하고 올바를 때에만 신앙과 교회는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그릇될 때에 신앙과 교회는 죽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시들해진 이유는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따라오는 첫 번째 이미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상과 교회'라는 부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는데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해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단 한

번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이 단 한번 일어난 사건을 신앙화하여 교회는 존립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신앙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지금 현재의 나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유일회적 사건이 평생 동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반복되어져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건의 신앙화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성립하게 되었고, 그 때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입을 열어 설교를 하였는데 신약교회에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설교를 보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사건을 신앙화하여 존립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부활과 승천사건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곧 내 마음에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끝나는 지점이고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출발점입니다. 경포 해변에 나가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육지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와 같이 세상의 끝입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예수님이 만드신 부활과 승천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그 어떤 위인도 만들어 내지 못했던 세상이 끝나는 십자가 지점에 이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늘까지 이어지는 하늘기운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세상 기운이 지배하는 공간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십자가 너머에는 하늘기운이 지배하는 공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간은 바로 마음 둘 곳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씀에서 이미 가치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머무실 수 있도록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고자 막강한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흡입력을 가진 마음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마음 채움을 위하여 세상에서는 어떤 대상도 구하거나 찾지 않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 대신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서 하나님만을 마음 채움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마음이 연합하였음을 뜻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늘에 앉힌바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로서 교제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그 교제에 참여하여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음 채움을 위하여 즉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십자가 너머로 가서 위의 것을 추구하되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서 마음 채움을 기대하지 않고 땅에서 마음 채움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하였고 이어서 19절에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점에서 십자가 사건에 근거한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던 세상은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십자가 너머로부터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하늘까지 닿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 근거된 교회는 세상기운에 지배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몸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정리해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이나 가깝게 지내는 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이미지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두어 세상과 구분 된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분되는 자들입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예배당을 떠올리기 전에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 너머에 마음이 모인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적 특징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육체의 모임이 아니라 마음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십자가 저편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하늘에 마음을 둔 자들 전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십자가 너머에 둔 자들의 몸이 모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몸이 흩어져있든지 모여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 전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강릉에 있고, 김 집사님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계시고, 박 권사님은 프랑스 파리에 계시고, 이 장로님은 미국 LA에 계실지라도 각자가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몸은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하나의 교

회이며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가장 잘못된 말 중의 하나가 '교회 다닌다. 또는 교회 출석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거나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는 다니거나 출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를 영어로 하면 'I go to church every sunday'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go to church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교회를 건물로서의 예배당(chapel, church building)으로서 표현한다면 가능할지언정, 교회에는 갈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다닐 수 있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몸으로 다닐 수 있거나 출석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서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를 할 때에도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나는 배우자와 대화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으면 시장 통에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잘못 된 것입니다. 예배당을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몸이 예배당에 있더라도 마음을 십자가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우려하지 않고, 세상 편에 서서 채우고자 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교회의 개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낼 때에는 몸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세상 편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고 있다면 몸이 예배당에 있을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수 있다고 하고 병 고칠 수 있다고 하고 장사 잘될 수 있다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오히려 이들은 교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중이고, 설교하는 목사님조차 교회 바깥에 있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머물 때에, 몸은 어디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 안에 머물게 됩니다.

시장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번 돈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대신에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로 마음을 채워서 기뻐하시듯이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버지를 받아들임으로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초 공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범 공간적으로 존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하는 모임을 강조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하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교회에 대해 정리하며 육체의 모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승천의 공간에는 지금이라도 70억 온 인류의 마음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추석에 한국사람 모두가 달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공간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몸은 한꺼번에 한날한곳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수가 모일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교인들의 육체의 모임을 위해서 예배당은 필수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래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수준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란 모임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모임을 마치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집이 곧 모임 장소였다는 것이고 모임의 목적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통함에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의 모습처럼 군중이 몰려있고 단상에 목사가 올라가 말씀을 선포해야만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통함으로부터 모임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과 제가 만났다고 하면 서로의 마음에서 붙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마음에서 붙든 십자가를 보면서 내 마음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힘이 더 강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십자가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곧 세상을 떨쳐내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흡입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마음 채움이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십자가를 보여주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사도신경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면대면 상대방 마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통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임을 강력하게 권장하였던 것입니다.

수천수만 명이 모여야 되는 예배당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전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예배당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을 놔두거나 없애거나를 생각하기보다 그 존재가치를 바로 알아야합니다.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든 상가건물에 세를 들었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한 가정에 두셋이 모여서 가지는 모임을 권장하였습니다. 결코 수백수천 억을 들여서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의미상 내용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상가건물이든 화려

하든 결코 땅에 지어진 예배당이 성전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성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의문이 드는 것은 목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목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보낸 이들의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였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마음을 하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무병장수 등을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로 찾는 한 마음은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낸 사람들 전체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거나 출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낸다면 식당에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직장에 있을지라도 교회에 있는 것이며, 사장님께 꾸지람을 듣는 순간에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십자가에서 출발한 논리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임을 위한 예배당조차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목회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했던 목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라는 단어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당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회는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모인 것도 그곳이 유대인들의 생활습관상 모임의 장소였기 때문에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면서 예배당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당 또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곳이었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는 본래 예배당 없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목회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는 출석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으면 나는 어디에서든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상 속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신앙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모임이라는 것은 면대면 내 속의 십자가를 보이는 것이고 상대방의 십자가를 보는 만남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회가 살아야 신앙이 삽니다. 교회가 살려면 십자가에 기초된 바른 교회의 정의가 마음에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쓰러져 가는 한국 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티끌 같은 모퉁이에서 오늘도 저희들 각자가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